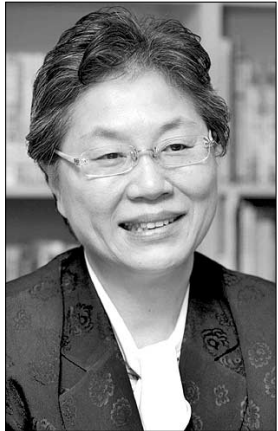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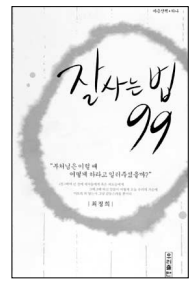
부처님, 어떻게 해야 큰 부자가 됩니까?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못 끊고 운동을 게을리 하고, 세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내가 산책을 나가면 만나는 중증환자가 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연습을 한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꾸준히 노력한다. “말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인사를 하니 그는 “이만한 것도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육신 부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건강한 삶의 한 모습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 돈만 많은 부자보다 더 값진 부를 누릴 수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법 밖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법구경> 안락품에서 이렇게 일러준다. ‘병 없이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신뢰가 두터운 것이 가장 좋은 벗이요, 열반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현재 불교 방송 ‘BBS 초대석’을 진행 하고 있는 최정희 前 현대 불교신문 편집국장(사진)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해롭고 현명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우리들 삶의 문제를 99가지로 정리했다. <잘사는 법 99>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여 해답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아함경>과 <법구경> 등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골라 ‘일깨움’을 준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현대인들의 고민은 다양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 낼 수 있을까? 저자는 26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에서 살 빼는 법, 재산관리법, 돈 벌고 쓰는

법, 사랑하는 법,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 등의 해답을 찾아냈다. 그리고 나서 부모처럼 스승처럼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답을 들려준다. 또 주제마다 저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문제와 고민을 독자들에게 함께 공유한다. 즉 독자들에게 그 상황을 몸으로 써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에게 묻지 않고, 주로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 또는 일화를 통해서 물음을 풀어간다. 마지막으로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읽어볼 만하다. 최정희 前 편집장은 “지금의 시대와 부처님 당시 시대 상황이 다르고, 고민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 부처님 말씀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확실한 해답을 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잘사는 법 99
최정희 지음
우리출판사 | 8000원

“운주사는 장보고 추모 유적지”

천년의 비밀 운주사 최홍 지음 | 바보새 | 1만2000원

우리나라 최고의 불가사의로 꼽혀 온 전남 회순 운주사. 운주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천불천탑의 성지’가 아니고, 우리의 결출한 해상왕 장보고를 추모하기 위한 유적지라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서 운주사가 불가사의로 남아 있던 것은 장보고가 역사에서 대역죄인으로 처부되었기 때문에 내막을 밝힐 수 없었 것이라는 추론까지 제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책의 구성은 총 5부로 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 최고, 최대의 불가사의 운주사’ ‘장길산과 녹두장군에 등장한 운주사’ ‘운주사 해석에 소홀했던 문인들’을 수록해 운주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본다. 2부 해독을 위한 제 1단계, 기존의 견해들에 대한 검토 편에는 ‘운주사 유적 조성에 대한 설들’ ‘운주사 유적 조성에 대한 설화들’ ‘설화들의 전반적인 의미’ 등이 실려 있다. 3부 해독을 위한 제 2단계, 운주사 유적들에 대한 해석 편에는 ‘와상(사진)은 장보고 부부?’ ‘장보고의 주요유적이 고려 시대에 조성된 사유’ 등을 설명한다. 4부 해독을 위한 제3단계, 방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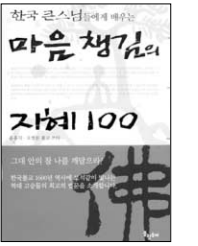
들에 대한 해석 편에는 ‘산동반도 적산원의 추석 명절’ ‘백제탑과 신라탑의 공존’ 등의 내용이 소개된다. 마지막 장으로 ‘장보고의 부(富)와 유적 조성 비유’ ‘도선과 장보고’ ‘운주사 유적은 도선국사가 설계’ ‘해상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장보고’ ‘장보고의 실책, 과연 실책이 있는가’ ‘형제전에 별도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장보고’ 등의 내용이 흥미롭다. 저자인 최홍씨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북대 법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문인협회와 소설가협회 회원으로 다수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베링 999>를 발표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역대 고승들의 법문 엮어

한국 큰스님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 윤홍식 지음 | 봉황동래 | 1만5000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우리 인생은 ‘나’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펼쳐졌으며, 모든 것은 ‘나’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나’를 모르고서는 ‘남’도 이해할 수 없고, 삶의 터전인 이 현상계도 이해하지 못하며, 영원한 현상계와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말 그대로 바로 ‘나’이니, ‘나’라는 존재 안에서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할 장소가 이렇게 분명하데 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밖에선 ‘나’를 찾을 수 없다. 오직 ‘나’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서 찾아야. 이것이 바로 모든 번뇌를 끊고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불교의 핵심이자, 이 책에서 초지일관 밝히는 내용이다. 한국의 역대 고승들의 법문을 통해 불교의 가장 핵심인 ‘참나(佛性)를 깨닫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한국의 풍토와 한국인의 정서에 더 맞는 새로운 ‘불교유신론’을 천명한다. 저자인 윤홍식 대표 윤홍식씨는 철학자이자 명상가이며 문명탐구가이다.



위빠사나로 팔정도 실천하기

부처님이 갔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재가자도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빠사나 명상’과 ‘팔정도(八正道)’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려운 불교 교리를 대중적이고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스리랑카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이 펴낸 <부처의 길, 팔정도>는 팔정도를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은 위빠사나 명상 즉 알아차림을 이용하여, 팔정도의 여덟 단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점이 돋보인다.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 실천 수행해야 하는 여덟 가지 단계들을 제시했다. 이것이 팔정도이다. 팔정도는 특히 괴로움의 원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정신적 장애들을 극복하는 법 등 일상생활의 지혜들을 설명한다. 또 고통을 끝내는 법,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인 욕심과 화를 다루며, 바른 생계를 구하고, 부모와 자식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애를 계발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화투”는 스님이 만든 놀이였다?

천태종 대전 삼문사 주지이며 금강대 총무 처장인 경천 스님(사진)이 산문집 <바람속에 풍경소리> <묵향>을 펴냈다. 스님이 펴낸 2권의 산문집에는 수행의 일상사에서부터 삶에 대한 통찰 등 무거운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글쓰기도 시의 행식을 빌어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예세이처럼 경쾌함을 안겨준다. 다루는 내용은 몸담고 있는 도량인 광수사와 구인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명산과 암자, 말리는 백두산 천지등을 오가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밀도있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거룩한 진리 화투”에서 스님은 16세기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일본에 들어온 카루타가 변형된 것으로 알려진 화투는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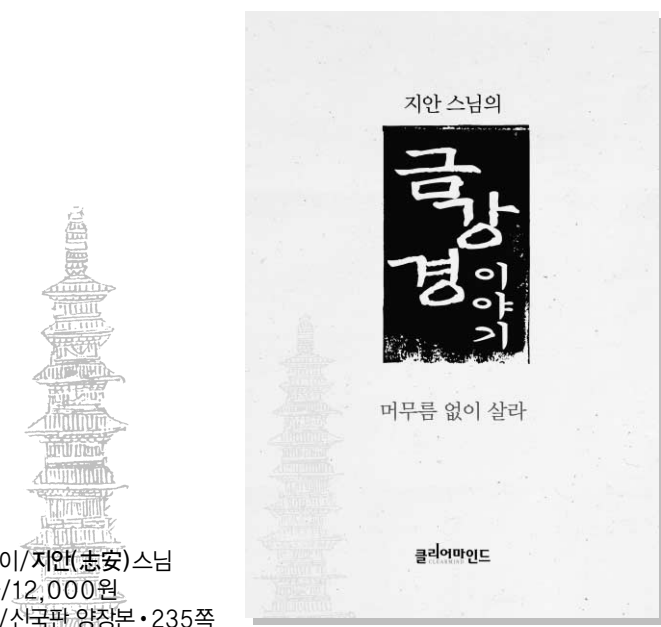
바람속에 풍경소리 | 묵향
경천 스님 지음 | 중문출판사 | 각권 1만원

스님은 ‘화투’가 아니라 ‘화도’가 맞다며 삼국시대 화엄경을 중심으로 세상 진리를 통달한 스님들이 만들어 행한 놀이를 화엄법회라 했다고 주장. 스님은 선인들이나 큰스님들은 선문답을 주고 받으며 세상진리를 12달에 12연기법의 내용을 화쪽으로 48장 미타인행 48원(아미타부처님이 보살인행때에 닦은 48가지)에 담아 놓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총림 승가대학원장 지안(志安)스님의”

금강경이야기

머무름 없이 살라



지안이/지안(志安)스님
정가/12,000원
판형/신국판 양장본·235쪽

“지안 스님의 끊임없는 간경과 정진이 함께 녹아있어 큰 감동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금강경 이야기,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구도심으로 지금 만나보십시오.”

《지안스님》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 조계종 고시위원 및 교육원 역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30여년간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현재는 조계종 총림 승가대학원장으로 승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반야경전교실, 반야불교학당을 개설 제가 불자들에게도 교학을 펴는데 앞장서고 있다.

看話正路

간화정로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동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간화선이 우수하다고 자처하면서도 세계에 알려는데 지침서가 부족했다면 간화정로는 해외에 선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설정스님(덕송 총림 수좌)

월암 스님은 재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간화정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이 스님, 재가, 해외불자들에게 선 수행에 지침서가 되어 눈 밝은 남자가 무수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영진스님(전국 선원수좌회 의장)

간화선이 수승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수행을 일관하신 분들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불교 학자들은 실감이 부족하여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정확한 간화선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행과 학술적 근거를 겸한 간화정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간화선 지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글 월암 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